부처님이 아버지 정반왕의 다비를 모시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10)

정반왕이 돌아가다

정반왕이 연로하여 병이 들었다. 뼈 마디마디는 끊어지려 하고 숨도 가빠졌다.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었다. 두 아우와 이웃의 여러 왕과 신하들이 정반왕을 찾아 위로했다.

"대왕께서는 평소에 악을 짓지 않았고 공덕 쌓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근심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정반왕이 말했다.

"싯달타와 난타, 아난타, 라후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떠났으면 좋겠구나."

왕은 눈물을 흘렸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멀리 떨어진 마가다국의 왕사성에 계셨다. 왕은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곁에 없는 부처님과 왕자들의 생각이 간절했다.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왔다.

비록 멀리 있는 부처님이시지만 부처님께서는 부왕의 마음을 깊이 아시고 즉시 난타와 라후라 등에게 명하셨다. 신통으로 가비라국에 나타나 큰 광명을 놓게 하였다. 가비라 백성들이 멀리서 이 모습을 보고 모두 소리 높여 말했다. "만일 대왕께서 돌아가시고 부처님께서 이 가비라국을 보살피지 않으신다면, 필시 석가족도 끊어질 것입니다."

성 안의 백성들이 부처님을 향하여 슬퍼하며 통곡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상하고 이별함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나고 죽는 것이 고통이요, 오직 도(道)만이 바로 진실이다."

부처님 광명이 밝게 비쳐서 안팎을 꿰뚫으며 정반왕의 몸을 비추자 왕이 말했다.

"이것이 무슨 빛이냐? 빛이 나의 몸에 닿자마자 근심과 괴로움이 모두 사라졌다. 혹시 이 빛은…"

밖에서 광명을 보고 돌아온 이가 말했다.

"부처님과 아난, 라후라 등이 하늘을 타고 오고 있습니다."

왕은 마음이 뛰어오를 듯 기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 앉으면서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여래께서 나의 몸을 한 번 만져 주는 것뿐이다. 내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구나."

드디어 세존을 만나자 정반왕의 그 고통이 이내 사라졌다. 부처님께서 난타에게 말씀하셨다.

"왕의 본래 모습을 보자면 단정하고 장대하기로 명성이 멀리까지 자자했다. 지금은 병이 깊고 쇠약해져서 뵙고도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구나. 그 좋은 모습이며 힘이며, 명성 따위가 이제 어디에 있는가?"

왕은 일심으로 합장하며 말했다.

"근심하지 마소서. 덕은 순수하여 결함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수 왕의 이마를 만지며 말씀하셨다.

"왕께서는 청정하게 계행을 지킨 분이라 마음의 때는 이미 멀리 여의셨습니다. 그저 기뻐해야 할 뿐 근심하거나 괴로워 할 일이 아닙니다. 깊이 유념하셔서 여러 경전에 담긴 법의 뜻을 생각하시고 굳건하지 않은데서 굳건한 뜻을 얻으십시오. 선근을 심으셨으므로 왕께서는 마땅히 기뻐하셔야 합니다."

대왕은 서원하며 말했다.

"부처님과 난타, 아난타, 라후라 네 아들의 이름으로 죽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거두어 주소서."

왕이 비로소 마음을 가볍게 하고 기뻐했다. 부처님께서 부왕을 위하여 〈양마바라본생경〉을 말씀하시니, 왕은 아나함의 도를 얻었다. 왕이 부처님의 손을 잡아 가슴 위에 놓자 부처님께서 다시

"저희는 부처님의 제자요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들어서 수다원(須陀洹)을 이루었으므로 저희들이 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메도록 허락하시자 사천왕은 모두 즉시 몸을 사람의 몸으로 바꾸어 관을 어깨에 메었다. 부처님의 위엄 있는 광채가 마치 만 개의 해와 같았는데, 부처님께서는 손에 향로를 들고 앞장서서 걸었다. 법구가 연화대에 닿자, 영취산의 천 아라한도 허공을 날아와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렸다.

"원컨대 저희에게도 할 일을 명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숲에 가서 향나무를 가져오너라."

삽화 · 강병호

법을 설하셨다. 왕은 아라한의 과위를 얻고서 숨을 거두었다. 모든 석씨들은 슬퍼하면서 왕의 몸을 깨끗이 하여 입관했다. 관을 들어 사자좌 위에 놓아두고 꽃을 뿌리며 향을 피웠다. 부처님께서는 난타와 함께 머리 쪽에 자리하셨고, 아난과 라후라는 발아래 자리했다. 난타 등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길러주심을 우러러 기억하며 저희들이 관을 메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미래에 불효한 중생들이 부모가 길러주신 은혜를 보답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몸소 당신이 메려 하셨다. 대천이 진동하여 산들이 마치물결 위에 배처럼 흔들렸다. 욕계의 6천(天)의 수없는 권속들이 다 함께 정반왕의 죽음을 애통해했다. 모든 왕들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아라한이 온갖 향나무 장작을 가져와 연화대를 쌓고 불을 놓아 다비하였다. 대중들은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슬퍼하며 통곡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괴롭고 공하며, 무상하여 마치 허깨비 같으니, 물에 비친 달이며 거울에 비친 형상과 같은 것이다."

시신이 모두 타자 뼈를 거두어 금강함에 넣어서는 즉시 함께 탑을 세웠다. 대중들이 물었다.

"정반왕은 어느 곳에 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정거천(淨居天)에 나셨다." (〈정반왕니원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간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⑩

상생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누구로부터 행복했고 누구로부터 슬퍼하고 속상했던가? 반대로 나는 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 그리고 즐거움을 줄 수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지난 날 어리석고 모자라 더 잘할 수 있었던 일조차 잘못된 역사를 이루고 말았던 것 같다. 더 사랑하고 아름다운 말로 품어주고 안아주었어야 할 일에도 소홀히 흘려보내고 바보처럼 늙었다. 지금은 늦었지만 생의 남아있는 시간 동안 후회 없는 보람으로 채워 살고 싶다. 미움과 사랑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닌데도 미움을 안고 있노라면 돌을 안고 있는 무게만큼 가슴이 무겁고, 사랑할 때의 마음은 몸과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 훨훨 날아갈 것만 같다. 미움은 혼자 가슴앓이를 해야 하고, 주변에 고통을 주게 되지만 내가 행복해 하면 주변의 모든 삶들도 따라 기뻐하고 행복해 하니 세상이 맑고 향기로워 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행복한 가슴이 되어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손길로 대하여 정다운 삶이 되길 기원해 본다. 며칠 전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나는 갑자기 우울하고 불편해졌다. 멍하니 거울을 보고 있었다. 암담한 나의 표정은 너무도 보기가 흉하고 미워져서 거울 밖으로 얼른 나와 버렸다. 내 모습이 저렇다니 믿기지 않을 만큼 싫었다. 법정 스님 49재에 다녀오던 날 써두었던 글을 꺼내 읽었다.

부족한 '나' 보면 '삶' 겸손해져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인정해야

–법정 스님을 추모하며–

스님이 가시고 49일 되던 날. 송광사에서 재를 지내니 전국에서 모인 스님들과 추모의 인파는 헤아릴 수 없는데, 스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불일암 가는 길. 스님이 생전에 수없이 거닐던 이 작은 오솔길을 따라 오늘은 내가 이 길을 걸으며 스님을 생각한다. 숲속의 꽃과 나무들을 만날 때마다 "산에는 꽃이 피네. 산에는 꽃이 지네." 노래하시더니 이젠 모두 두고 먼 길 떠나셨네. 그래도 봄은 봄이라 스님이 보아주지 않아도 기어이 싱그러운 봄기운이 들어차 이내 꽃들을 피울 기세다.

오솔길 끝에 불일암. 너무도 소박한 불일암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예전에 손수 심으신 파초가 봄빛을 받아 다시 뜰 앞을 채우려 하는데 스님만 보이질 않는다. 어디로 가셔서 이리도 안 오실까. 짙은 대숲의 정낭에도, 작은 옹달샘의 물바가지에도, 그 곁 땅에 묻힌 작은 김장 항아리에도, 스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정겨운 물건들인데 오늘은 이 모두가 다 쓸쓸한 추억이 되어버렸으니….

깔끔하게 정리된 부엌을 보면서 지난날 이곳에서 우리가 공양을 이정 함께 하던 시간들이 그리워진다. 자연은 오라고도 가라고도 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 세상에는 이렇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니 나도 언젠가 이 그리움 안고 떠나갈 텐데. 나는 어떤 향기로 살다 어떤 모습을 남기고 어떤 보람 안고 갈까.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은 누구나 다 똑 같다. 그러면서 또 다 다른 모습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생김생김이 각자 다르고 생각도 다 제 각각이다. 함께 살아도 함께 있어도 가슴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모습도 모두 다른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인간 위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마다 다른 모습과 생각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평안한 삶이 되는 것이다. 왜 나와 다른 생각이냐고 왜 다른 마음이냐고 따진다면 절대로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없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같은 부모님을 의지해 태어난 형제지만 자라면서 자기주장이 생기고 주장은 때로 의견차이로 이어져 다투게 되는데, 하물며 타인끼리야 오죽할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 하려면 그 상대가 누구이든 그 사람의 생각이나 모습에 시비를 따지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바로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 주었을 때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우리 소림 연화 회관 식구들도 이 좁은 공간에서 모두 용케 참아주고 믿어주는 미덕으로 이만큼이라도 정다운 관계를 이루고 서로에게 배려하는 마음 있어 좁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지 않으니 법회 때 마다 고마움이 가슴을 저리게 한다.

곳곳에 좋은 도량을 이룬 절들이 많고 많지만 우리만큼이나 정다울까 싶다. 노보살님들의 넉넉한 눈빛과 젊은 봉사단의 헌신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다. 언젠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포근한 우리들의 기도처가 마련된다면 그때는 새로운 기쁨과 행복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우리는 이제라도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고 왜면하지 말아야 한다. 큰 숲속에 크고 작은, 그리고 각기 다른 성품의 꽃을 피우는 나무들처럼 우리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할 때이다. 혹시 잠시나마 섭섭함이 생길 때면 빨리 그 마음을 지울 줄 아는 지우개가 되어 스스로 지워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물에 발을 담가 보지 않아도 물의 깊이를 알아보는 지혜로 사람도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보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원망과 미움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 또 언젠가 부처님 회상에서 다시 만나는 도반이 되길 서원하며 보살의 길로 정진하는 원력을 세워본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일깨워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천·연·향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입니다.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가공 후 부산물로 나오는 찌꺼기 약재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 유통되는 정품약재를 사용하여 일일이 선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므로 항상 깨끗하고 맑은 향으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평소 고마운 마음을 아름다운 향기로 선물하세요!
주는 이의 마음을 오래토록 기억할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구매 시 구매 수량별
추가로 드리는 덤 증정행사
(선물용으로 바로 쓰실 수 있게 쇼핑백포장까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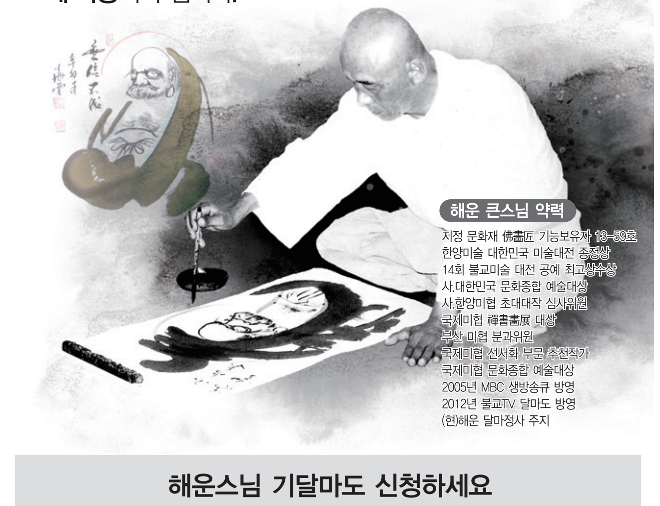
- 용 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실내 공간 비치용
- 규 격 : 복주머니 12*19cm (펼쳤을 때)
- 내용량 : 100g

제조원 : 수풀림 주문전화 : (062)385-9954 010-5607-3313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해운스님 2013년 영험한
소지용 氣달마도

영험(靈驗)한 소지용 기달마도를
직접 그려드립니다!

해운큰스님은 전국의 불자님에게 10만여장의 기달마도를 그려주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기달마도**는 **결혼/건강/회사원/운전/취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재수달마도**는 **자영업/주식/승진/사업/부동산**을 하시는 분들께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달마도를 받으신 분들이 효험을 보자 많은 분들의 신청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달마도를 소지하시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보십시오. **달마도 보시가는 3만원**이며 수익금 전액은 **해운스님 달마복지관 건립불사에 사용**되어 집니다.



해운 큰스님 약력
지정 문화재 佛畵匠 기능보유자 13-59호
한양미술 대한민국 미술대전 종정상
14회 불교미술 대전 공예 최고상수상
사.대한민국 문화종합 예술대상
사.한양미협 초대작 심사위원
국제미협 禪書畵展 대상
부산 미협 분과위원
국제미협 선서화 부문 추천작가
국제미협 문화종합 예술대상
2005년 MBC 생방송큐 방영
2012년 불교TV 달마도 방영
(현)해운 달마정사 주지

해운스님 기달마도 신청하세요
☎(055)353-9925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 30,8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크기 : 직경 10mm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